

보도자료

2011년 4월 15일(금)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손승현 과장(☎750-2450)
뉴미디어정책과 최은호 사무관(☎750-2451) choieh@kcc.go.kr

“방통위, MBC의 스카이라이프 수도권 HD방송 중단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최시중)는 MBC와 스카이라이프간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수도권역 MBC HD방송 송출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방송사업자간의 사적 계약 영역에 대한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방송 중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향후 시청자 피해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14일 06시부터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수도권역 MBC HD 방송 송출이 중단됨에 따라 MBC와 스카이라이프 양측에 분쟁 해결과 시청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스카이라이프에 MBC HD 송출 중단에 따른 HD 가입자의 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재송신 분쟁의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올 해 상반기 중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참고1>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현황('11. 3월 14일 현재)

- 스카이라이프 수도권 가입자는 총 133만(HD 70만, SD 63만) 가구로 MBC HD 방송 중단으로 인해 47만 가구가 실질적으로 HD방송 시청이 불가 (기존 스카이라이프 MBC HD 시청자는 현재 SD급으로 시청이 가능)
- ※ HD 가입자(70만) 중 OTS 가입자(23만)는 IPTV를 통해 MBC HD 방송 시청이 가능

<참고2>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 주요

<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

- (의무재송신 확대) ① 'KBS2 채널'까지 확대(무상)하는 방안 ② '모든 지상파방송'으로 확대하여 2년간 한시적(일몰제)으로 시행
- (대가 정산기준)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지상파방송 재송신 시의 사업자간 적정 대가 정산기준 마련('11년말) 후 방통위가 고시
- (분쟁해결 강화) ①현행 '조정' 제도 절차 보완(불응절차 폐지 등) ② 중대한 분쟁(대규모 등) 발생시 '긴급 조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③ 통신분야 '재정' 제도를 방송분쟁에 확대 적용